

# 기다렸다! 프로야구... 오늘부터 시범경기



**가자! V12** 13일 열리는 프로야구 시범경기를 앞두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앞  
에 V12 조형물이 설치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KIA 광주서 두산전

### 아시안게임 휴식기로

### 팀당 8경기로 축소

2018 KBO리그를 엿볼 수 있는 무대가 시작된다.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13일 오후 1시 챔피언스필드 등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빠른 개막'으로 인한 '짧은 시범 경기'가 준비되면서 그라운드와 시계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흘러가게 된다. 이번 시범경기의 재미를 더할 관련 포인트를 살펴본다.

#### ◇캡틴 MVP들의 도전 무대

시범경기는 '샷'들의 탄생 무대이기도 하다. 스프링캠프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기회를 얻은 신예 선수들의 움직임에 눈길이 쏠린다. KIA도 시범경기를 통해서 아직 남은 엔트리 조각을 맞출 예정이다.

캡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투수 박정수, 유승철 그리고 내야수 황윤호가 KIA가 주목하는 신예 선수들이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사이드암 박정수는 어깨 통증으로 시즌 출발 시기가 늦춰진 임기영을 대신할 유력한 선발 후보다. 고졸 2년 차 유승철은 강력한 직구를 앞세워 생애 첫 1군 무대를 겨냥하고 있다. '이적생' 황윤호는 부족했던 타격을 보완하면서 김선빈의 뒤를 받쳐 줄 백업 유격수로 급부상했다.

대만캠프에서 좋은 타격 실력을 보여준 고졸 신인 내야수 오정환도 김기태 감독 앞에서 어필할 기회를 얻었다. 경쟁한 선발배들 사이에서 오키나와 캠프를 치른 포수 한준수와 투수 하준영도 패기 있는 루키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 ◇초반 성적을 좌우할 '감잡기'

올해 KBO리그는 아시안 게임 휴식기로 인해 예년보다 빠른 오는 24일 정규시

#### ■KIA 시범경기 일정

날짜	시간	경기	구장
03.13(화)	오후 1시	두산vsKIA	광주
14(수)	오후 1시	두산vsKIA	광주
15(목)	오후 5시	넥센vsKIA	광주
16(금)	오후 1시	넥센vsKIA	광주
17(토)	오후 1시	KIAvs삼성	대구
18(일)	오후 1시	KIAvs삼성	대구
20(화)	오후 1시	KIAvs롯데	사직
21(수)	오후 1시	KIAvs롯데	사직

즌 막을 올린다. 자연히 시범경기도 8경기로 축소됐고, 예년과 다른 빠른 흐름으로 시즌 개막을 준비하게 됐다. 두산(13·14일)·넥센(15·16일)과 홈 4연전을 치르는 KIA는 삼성(17·18일)·롯데(20·21일)와의 원정경기로 실전 테스트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22일 미디어데이 행사가 이어 23일 무사고 및 우승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며 개막 준비를 끝낸다.

야간 경기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준비됐다. 15일 넥센전을 오후 5시 경기로 치르는 KIA는 사직 원정길에 주축 선수들을 제외하고,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야간 훈련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선수들에게는 부상 없이 감을 잡는 게 이번 시범경기의 가장 큰 목표가 됐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KIA 주장을 맡은 김주찬은 "좋은 분위기에 부상자 없이 캠프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였는데, 큰 부상 없이 캠프가 잘 끝난 것 같다"며 "시범경기도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모두 안 다치고, 감을 잘 유지하면 좋겠다. 시범경기가 짧다고 컨디션 못 맞추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 선수들이 알아서 잘 준비하고 컨디션을 맞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라운드 안팎의 변화들

KIA는 지난 2014년 챔피언스필드 개장 이후 많은 예산을 투입해 프리미엄 좌석

확대, 어린이 놀이터·놀이방 조성, 메이저 리그식 그물망 교체 등 경기장 리모델링을 이어왔다. 올 시즌에는 우승에 따른 변화들이 있다. 지난해 'V11'을 이루면서 1루 관중석 상단에 설치한 우승 엠블럼이 추가됐다. 11번째 엠블럼 제막식은 시즌 개막전 때 이뤄진다. 3루 외야에 설치된 대형 야구공 조형물도 'V12'로 새 단장을 하고 봄을 기다리고 있다. 선수단 출입로 벽면도 통합 MVP에 빛나는 양현종의 포효 사진을 중심으로 한 우승 사진으로 꾸며졌다. 백스튜디오 LED 광고판으로 교체됐다.

경기 중에도 지난해와 다른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다.

시범경기에서부터 관중석의 팬들도 비디오 판독 화면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18 KBO 리그 규정과 야구 규칙 개정안에 따라 비디오 판독 시 전광판에 방송사 화면을 상영하기로 했다. 이는 시범경기에서부터 적용된다. 또한 4개의 공을 지켜보지 않고도 1루로 걸어가는 '고의사구 주자'를 볼 수도 있다. 올 시즌부터 감독이 심판에게 고의사구 사인을 보내면 투수의 투구 없이 고의사구가 이뤄진다. 시범경기 특성상 고의사구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투구 없는 고의사구를 볼 수도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T클럽' 회원 모집

KIA 타이거즈가 2018시즌 홈페이지 'T클럽' 회원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500명으로 가입비는 2만원이다. 13일부터 26일까지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선물로는 팬북과 호걸이 마우스패드 증정된다.

T클럽은 1년 회원제로 운영되며, 홈페이지 내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KIA 타이거즈 홍보팀 070-7686-8053)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형만한 아우들

김민석·정재원·이도형

주니어 빙속 팀추월 금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기대주들이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2개씩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2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끝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주니어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남자 팀추월 경기에서는 김민석(19·성남시청)과 정재원(17·동북고), 이도형(20·한국체대)이 금메달을 합작했다.

선수들은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며 3분43초55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일본과 러시아를 제쳤다.

김민석과 정재원은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팀추월에서 대선배 이승훈(30·대한항공)과 함께 은메달을 합작한 데 이어 주니어 무대에서도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다.

김민석과 정재원은 이번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이기도 하다.

정재원은 전날 3,000m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고, 김민석은 전날 동남아시아 정재우(19·한국체대), 박성현(19·한국체대)과 호흡을 맞춰 팀스프린트 금메달을 따냈다.

평창동계올림픽 1,500m 동메달리스트인 김민석은 이번 대회 1,500m 동메달과 매스타트 동메달까지 총 4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팀스프린트 멤버인 정재우 역시 2관왕이 됐다.

첫날 500m에서 한국 주니어 신기록(34초66)으로 우승했던 정재우는 팀스프린트 메달까지 거머쥐며 동생 정재원과 함께 금메달 2개씩을 사이좋게 안고 집에 들어가게 됐다. 정재우는 1,000m에선 동메달도 얻었다.

이날 박지우(20·한국체대), 윤정민(19·한국체대), 박재은(15·신현중)으로 이뤄진 여자 팀추월 대표팀은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 美 치고 1위 하고 결승 가고

## 장애인 아이스하키 오늘 3차전

8번 만나 한번도 이긴 적 없어

"미국전 즐기며 하겠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미국을 잡고 조 1위로 준결승에 가고 싶습니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한 한국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정승환은 11일 체코와의 예선 B조 2차전에서 연장전 결승골을 넣고 2연승을 확정짓는 등 미국과의 맞대결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광석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3일 오후 12시 강릉하키센터에서 세계랭킹 2위 미국과 예선 마지막 경기인 3차전을 벌인다.

이번 평창 대회에는 8개국이 참가해 2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상위 두 팀이 준결승에 오른다. B조 1위-A조 2위, B조 2위-A조 1위가 각각 결승행 티켓을 다툰다.

세계랭킹 3위인 한국은 미국(2위), 체코(9위), 일본(10위)과 B조에 묶였다. A조에는 캐나다(1위), 노르웨이(4위), 이탈리아(5위), 스웨덴(6위)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과 체코를 차례로 꺾고 2연승 행진으로 4강행을 예약한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10-0 대승을 누른 미국과의 마지막 경기 조 1위 결정전인 셈이다.

미국을 잡으면 B조 1위로 4강에 올라 A조 2위가 예상되는 이탈리아와 맞붙는다. 미국에 털미를 잡히면 A조 1위가 유력한 캐나다와 만난다.

미국전 결과에 따라 상대가 결정되는 만큼 세계 1위 캐나다를 피하려면 승리가 필



## 역주 뒤 탈진

12일 강원도 평창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패럴림픽 장애인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20km 프리 입식 경기에서 한국 권상현이 결승선을 통과 후 주저앉고 있다. /연합뉴스

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2010년 밴쿠버 대회와 2014년 소치 대회에서 동계패럴림픽 2연패를 달성한 장애인 아이스하키 강국이다.

한국은 미국과 대결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2014년 소치 패럴림픽 때는 예선 1차전에서 개최국 러시아를 연장 접전

끝에 3-2로 제압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하지만 2차전 상대인 미국에 0-3으로 패했다. 결국 3차전에서 이탈리아에 1-3으로 지면서 준결승에 오르지 못하고 7위에 머물렀다.

공식 집계로는 2014년 소치 대회 이후 최근까지 8번 싸워 여덟 번 모두 패했다.

그러나 미국전 승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서광석 대표팀 감독은 "미국전 자신감은 좋지만 치열한 장과 방패의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지만, 미국을 이기면 결승에 간다는 생각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3차전을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팀 주장 한민수는 "미국을 이기면 조 1위로 결승에 쉽게 갈 수 있다"면서 "지더라도 준결승에서 캐나다를 잡고 결승 가서 미국에 설욕할 기회가 있으니 더 짜릿할 것 같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연합뉴스

## 타이거즈기 호남 중학야구

## 무등중 우승

무등중이 '제12회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무등중은 1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지난해 우승팀 충장중을 7-5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예선전에서 나주 영산중과 세지중을 차례로 제압한 무등중은 화순중을 10-2로 완파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이번 우승으로 무등중은 2015년 이후 3년 만에 통산 3번째 우승을 이뤘다.

이번 대회는 광주, 전남·북 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5일부터 10개 중학교가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렸다.

우승팀 무등중에게는 우승기와 더불어 우승 트로피, 상장, 야구용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준우승(충장중)과 3위 2팀(화순중, 동성중)도 트로피와 상장, 부상으로 야구용품을 받았다. 참가한 모든 팀에게도 야구용품이 기념품으로 돌아갔다.

또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무등중 김복원에게 트로피와 상장이 수여됐으며, 부문별 수상자에게도 트로피와 다양한 야구용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 ◇개인상 수상자

▲최우수 선수상 : 김복원(무등중)  
▲우수 투수상 : 김대홍(무등중) ▲타격상 : 최우혁(0.667·무등중) ▲최다 안타상 : 문동주(7안타·무등중) ▲홈런상 : 신명승(1개·진흥중) ▲최다 타점상 : 강지운(6타점·무등중) ▲감투상 : 서영진(총장중) ▲최다 도루상 : 윤도현(10개·무등중) ▲수훈상 : 백진수(무등중) ▲미기상 : 박도현(총장중)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